

“더 높은 안전보건 달성을 위해 오늘도 고민합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 | 변형석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글 안유진 대한산업보건협회 인천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사진 김재이

변형석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100% 완벽한 안전보건이란 없다.
100%에 최대한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자”를 마음에 새기며
진정한 안전보건 달성을 위해 늘 고민한다.
그에게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최우선의 목표다.
남다른 사명감과 노력으로
4,000여 명 임직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변형석 책임을 만나보았다.

이달의 한마디

“안전보건활동은
맡은 역할 그 이상을
수행하는 것”



사명감과 장인정신으로 무장한 보건관리자

변형석 책임은 자신을 '소금'이라고 표현한다. 회사를 음식에 비유했을 때, 소금은 음식에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그 맛을 내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반도체 회사 스태츠칩팩코리아에서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19년째 수행하고 있다. 스태츠칩팩코리아 안전보건관리팀(이하 EHS팀) 소속으로 동료들과 함께 안전을 사수하고 있으며, 타부서와의 협조를 통한 사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장인이 낫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천 번의 망치질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의 EHS팀은 사명감과 장인정신으로 사업장의 보건 환경 확보를 위해 노동자들의 의식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변형석 책임이 근무하는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OSAT) 기업이다. 한국, 싱가포르, 중국에 공장을 둔 글로벌 기업으로, 1984년 현대전자 반도체 조립 부문에서 출범해 여러 번의 인수합병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했다. 인천 영종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임직원 4,000명 이상, 매출액 4조 원 이상의 OSAT 부문 전 세계 3위의 규모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안전보건 환경의 가치를 믿고 안전보건 경영체계가 조직 내 전 영역에 걸쳐 이행되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조직 개선을 통해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재를 넘어 미래 세대까지 아우르는 설계를 하고 있죠.”





**그 자리에서 바로!
개선될 때까지 반복하여!**

반도체 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중대사고 발생 비율이 낮다. 하지만 낮은 위험도에 비례하여 노동자들의 안전의식이 낮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변형석 책임은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복 교육’에 중점을 두고 안전보건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보여주기식 교육이 아닌 실질적으로 작업자의 머릿속에 남고, 습관이 되어 언제나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대표적으로 매 작업 시작 전 10분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부상 방지 스트레칭, 보행 중 핸드폰 보기 금지, 사고 사례 공유, 위험성평가’ 등을 진행하고, 이외에도 노동자 건강을 위한 기본 사항부터 안전을 위한 심화 주제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뒤이어 변형석 책임은 또 다른 반복으로 ‘지적’을 강조한다. 때때로 노동자들이 단조로운 반복 작업으로 몸과 마음에 긴장감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구속하는 안전보호구를 벗으려고 하는데, 그러한 행동을 바로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서 바로, 개선될 때까지 반복하여’를 슬로건으로 EHS팀은 ‘10분 전 교육’과 ‘문제점 즉시 지적’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맡은 역할 그 이상의 노력과 행동

변형석 책임은 사내 안전보건 교육 관리와 더불어 화학물질 MSDS 자료 관리, 안전보호구/구급약품 신청 관리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더 완벽한 안전보건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한다.

“스태츠칩팩코리아에서 20여 년간 근무하며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은 ‘사내 안전작업 허가시스템 안착’입니다. 4,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내 모든 작업에 허가시스템 도입을 시도했는데, 초반에 많은 반발과 거부가 있었죠. EHS팀의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지도 등의 노력으로 이제는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작업 허가시스템이 사내에 정착되었고, 임직원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내 각종 작업 진행 시 안전팀의 안전작업 허가 절차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내 EHS 전산망을 구축하고 정착시켰다. 또한, PSM 공정안전관리를 1공장, 2공장 동시에 연이어 진행하면서 단시간에 공정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평가등급을 M+에서 S등급으로 높이는 성과를 얻었다.

“EHS팀은 안전과 보건에 관한 법적 요구사항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맡은 업무만 수행해서는 진정한 안전보건 달성에 부족합니다. 최소한의 법적 역할을 뛰어넘는 안전보건활동과 사업장의 노력이 더 높은 안전보건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